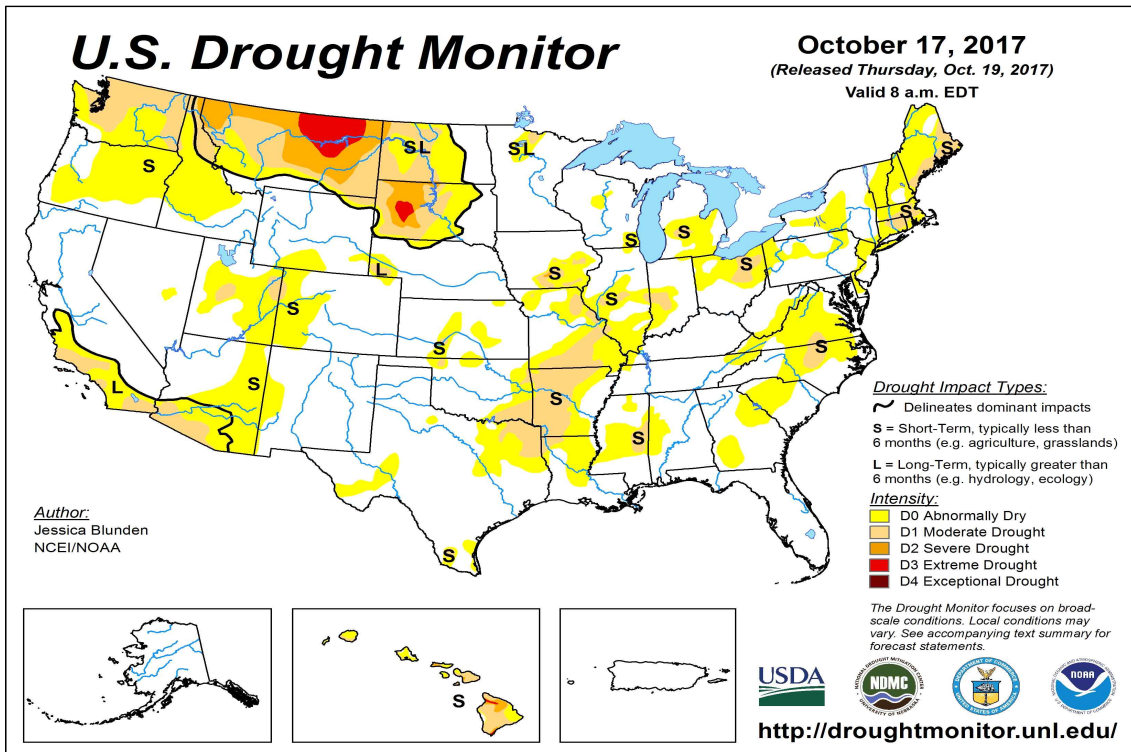


10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3)

□ 미국 기후 현황(10/15~10/21)

북서부 일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그 결과 Cascade 산맥 서부 일대의 누적 강우량은 4~12인치 내외를 기록했다. 로키산맥 북부 일대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눈과 비가 내렸는데, 10월 20일과 21일에 내린 비는 특히 캘리포니아 일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중부의 미시시피강 중류 지역, 걸프만 남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주 후반에 비가 내렸다. 남동부 일부 지역에는 10월 21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밀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부 평원 일대에서부터 뉴 잉글랜드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았고,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지역과 남서부 사막지역 등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기온이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0/16~10/22)

몬태나에서부터 미시간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북동부 일대와 오하이오, 중부 평원 일대에서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 일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대두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서부 일대와 남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낮은 날씨를 보였다. 오레곤과 워싱턴주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10/15~10/21)

■ 유럽: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고, 그밖의 유럽 전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대서양에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비구름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스페인 북부 농업지역인 Castilla y Leon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1월 초에 보리 등의 작물을 파종하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작업 일정을 비롯해 수확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북부, 폴란드 등에서는 주 후반에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유럽 전역에서 기온은 평년에 비해 3~8°C 정도 높았고, 현재까지는 동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오랫동안 가뭄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발달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Krasodar Krai, Stavropol 등 남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기온이 평년에 비해 1~5°C 정도 높은데, 이 덕분에 밀 밭아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여름작물 수확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북동부 일대에서는 서부 지역에 한해서만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양쯔강 일대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겨울작물 파종작업은 연기되었다.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다. 한편, 주 후반에는 태풍 Lan이 중국 남부와 일본 사이로 지나갔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남부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지난 3주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면서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비 덕분에 면화 등 파종작업을 마친 작물들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빅토리아 북부와 남호주 일대에서는 5mm 미만의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동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북동부의 Entre Rio, Corrientes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이들 지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기도 했지만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La Pampa 남부, Buenos Aires 북부 및 Cordoba, Formosa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서부의 La Pampa 북부, Salta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 비로 인해 중단되었던 파종작업이 재개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았고, Santiago del Estero, Chaco, Formosa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남동안에는 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영상권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동해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지난해에 비해 6%p 증가한 46%를 기록했고, 옥수수의 파종률은 26%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두 파종작업이 연기되고 있다. 중서부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Mato Grosso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고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오르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주 후반에는 Mato Grosso 남부 및 주변지역에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주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2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에 비해 느린 편이다. 남부의 Parana,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부에서는 30°C 이상 오르는 더운 날씨와 최근 내린 비 덕분에 여름작물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6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51%, 76%를 기록했고, 밀의 수확률은 79%를 기록했다.